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0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6월 21일 목요일 (음 5월 8일) 제207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완주 용진~전주 아중1교차로간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4차선화해야

중대형차량 통행량 늘어 주요 교차로마다 정체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도로 파손 등 피해 발생

익산국도청·정지권 등, 기재부에 예산 증액 요구

왕복 2차선으로 추진 중인 완주 용진~전주 아중1교차로간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를 4차선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익산국도관리청에 따르면 먼저 개통된 전주 용정~완주 용진간 4차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교통량 예측조사 결과차보다 중대형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주요교차로마다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도로 파손, 사고 위험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용진~아중1교차로 구간이 2차선으로 개통되면 용정~용진간 4차선 도로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여론에 따라 용진~아중1교차로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4차선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익산국도청의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도덕~산정) 건설공사 실시계획보고서에서는 시점부(도덕)~반월교차로간 1일 차량 통행량 ▲2011년-2만4,243대 ▲2020년-2

만9,357대 ▲2030년-3만5,368대 연차증가가 예상치를 나타냈다. 반월~신미간, 전미~용진간, 용진~하이교차로간 예측교통량은 ▲2011년-1만8,491~2만2,493대 ▲2020년-2만2,578~2만7,237대 ▲2030년-2만7,212~3만4,954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시공중인 아중1~아중2교차로간 예측교통량은 ▲2011년-3만6,672대 ▲2020-4만4,388대 ▲2030년-5만3,494대로 기 개통된 시점부~용진 구간보다 1배 가까이 차이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익산국도청, 지역정지권, 관련 주민 등은 현재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4차선 시공에 따른 예산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용진~아중1교차로 구간은 당초 4차선으로 계획했고, 부지는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구간을 교통량 대비 경제성 미흡, 타지역과의 연계 실효성을 내세우며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공사구간 시공사에 따르면 이 구간 4차선 시공시 예산증액분은 45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차선 완공 후 2차선 더 확장시에는 시공비가 200여억원 늘어난 65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주민 등 복수의 관계자들은 "예측교통량에서 나타나 듯 용진~아중1교차로 구간이 2차선으로 개통될 경우, 교통정체, 도로파손 등 피해 발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2차선 완공 후 재시공으로 4차선 확장할 경우, 거액의 예산 낭비 사태도 벌어진다"며 "기재부는 근시안적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행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용정~용진간 4차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총예산 2,846억9,800만원이 투입돼 지난 2006년 착공, 완공예정일보다 2년6개월 빠른 2016년 11월 완공됐으며, 지난 2016년 착공된 용진~아중1(산정)교차로간 제 1공구 도로는 총예산 890억원 투입, 오는 2023년 완공목표다.

나머지 2공구 용진~아중2(쌍장)교차로 구간은 오는 9월경 발주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송하진 도지사, 문 대통령 전북방문 요청

문 대통령, 격려 긍정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선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송하진 지사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방문을 직접 요청했으며, 대통령은 이를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4시경 송하진 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6.13지방선거 재선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GM과 서남대 폐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민주당에 보내준 전북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송하진 지사께서 공을 아 주 많이 들으신 것 같다(높은 득표율)"면서 "이제 살 좀 쪼셔도 될 것 같다"고 그 간의 노고에 격려의 마음을 표했다.

송 지사는 이에 대해 "대통령님의 전복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과 애정, 정부부처의 발 빠른 지원이 큰 기여를 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전복에 한번 오셔서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전복 방문을 직접적으로 요청했다. 대통령은 웃으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지사는 앞서 지난 17일에는 이날 연 총리와 통화에서 정부의 관심으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북현안 해결에 대한 깊은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청와대 수석 참모와 정부 주요부처 장관 등에도 전북현안 관련 통화를 진행했다. 6.13선거과정으로 잠시 멈춘 전북현안 행기가 일환이다.

송 지사는 6.13지방선거 이후 다음 날 곧바로 전북도지사 업무에 복귀해 전북현안과 관련한 점검과 통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성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일 익산 미륵사지 현장에서 지난 20년간의 작업 끝에 최근 수리를 마친 미륵사지 석탑을 공개했다.

미륵사지 석탑, 20년 수리 끝 모습 드러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가 20일 익산 미륵사지 현장에서 지난 20년간의 작업 끝에 최근 수리를 마친 미륵사지 석탑을 공개했다.

국보 제11호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1998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가 노후화되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9년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체·수리하기로 결정됐다.

이후 2001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라북도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석탑의 본격적인 해체조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학술·기술 조사연구, 구조보강, 보존처리 등을 시행했다.

미륵사지 석탑은 추정 복원을 지양, 지난해 12월 원래 남아있었던 6층까지 수리를 완료했으며, 오는 7월 중순까지 현장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12월까지 석탑 외부에 설치된 가설시설물의 철거와 주변 정비까지 완료하고 내년에 수리 준공식 개최, 수리보고서 발간 등을 마치면 석탑 보수정비 사업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는 단일

문화재로는 최장기간 동안 체계적인 수리를 진행한 사례이다. 특히,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학술조사와 해체·수리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석조문화재 수리의 선도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래의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 문화재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 7월 중순까지 일반에 현장 공개
12월 주변 정비 완료 후 내년 수리 준공식

본인들이 붕괴된 부분에 콘크리트를 덧씌워 보강했다.

한편, 2009년 1월 석탑 해체조사 과정 중 1층 내부의 첫 번째 심주석에서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가 발견돼 화계, 불교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석탑의 건립 시기(639년), 미륵사 창건의 배경과 발원지 등이 밝혀졌으며, 이후 수습한 유물들이 학술조사와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최근 보물로 지정·고고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국민에게 계속 공개해왔다.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될 가설시설물 철거와 주변 정비를 위해 잠시 현장의 개방을 중지할 예정이다. 정비를 마치는 12월부터는 미륵사지 석탑의 완전한 모습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그 동안의 수리 과정과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간, 기술교육, 학술행사 등을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국민에게 계속 공개해왔다.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될 가설시설물 철거와 주변 정비를 위해 잠시 현장의 개방을 중지할 예정이다. 정비를 마치는 12월부터는 미륵사지 석탑의 완전한 모습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그 동안의 수리 과정과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간, 기술교육, 학술행사 등을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7월 중순까지 일반에 현장 공개, 12월 주변 정비 완료 후 내년 수리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곳!

강수여행

밭길 닿는 곳마다 자연이 주는 넉넉함과 정겨운 미소, 푸근한 인정이 넘치는 장수로 오세요!

장수군 JANGSU COUNTY